

## 동서 기독교 윤리학의 가교로서의 서학 윤리사상\*

오지석 (송실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동아시아에 소개된 ‘에티카ethica’ 그리고 ‘에티크ethics’

1. 서학의 용어 액제가厄齊加(ethica)
2. 근대 번역어 ‘윤리’, ‘윤리학’

### III. 서학 윤리사상에 있어서 『철극』의 위치

1. 서학 윤리사상과 『철극』
2. 동서 윤리사상 물림과 엇물림의 자리

### IV. 나오는 말

\* 이 글은 2010년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

• ABSTRACT •

---

How does East meet West in the field of ethics? Historically speaking, Western style of learning (Soe-Hak西學) was introduced in 17th century and the Jesuits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it. It is not unreasonable to say that Jesuits teaching of ethics was the first lively experience with Western ethics. Especially, their Thomistic ethical tradition made a significant foot print on Confucian ethics. In this paper, in order to reconstruct the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intellectuals, "The Seven Victories over the Seven Capital Sins (七克大全)" by Diedace de Pantoja per se and its reception in Korea are considered.

**Key Words** : Western style of learning, Western ethics, Confucian ethics, The Seven Victories, Diego de Pantoja

---

##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지식사회는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서구의 사상들이 마치 날줄과 씨줄이 얽혀져서 한 땀 한 땀 지식의 지형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그 어느 때 보다 동서양의 교류가 잦고 일상화되어 있는 21세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마땅함’을 고민하게 될 때, 동서양 윤리학의 교류 가능성의 실마리에 대해 궁금함을 품게 된다. 특히 급속한 산업 사회로의 이행을 거친 한국 사회에서는 의례히 서양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나 생각이 낯선 이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여긴다.

다른 학문의 영역과는 달리 윤리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윤리 倫理’는 ‘ethics’의 번역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고 이야기 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 할까?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의 정형을 갖추지 못한 채 혼돈에 처해 있는 한국 사회의 ‘윤리’ 또는 ‘윤리학’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혼돈의 원인들이 무엇이나고 물을 때 한국 기독교 지식사회는 뭐라 답할 수 있을까?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기독교 지식인들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 가운데 여기서는 한국 사회는 기독교윤리를 서양 오랑캐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평가를 주저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와 서양 오랑캐들의 예절쯤으로 여긴 기독교 윤리의 만남이 언제 시작되었을까로 제한하여 궁금함을 풀어보려고 한다.

우리는 동서 윤리사상의 물림과 엇물림이 뜨거웠던 명말청초 明末清初에서부터 동서 윤리사상의 가교 역할을 한 서학윤리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7세기 중국에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와 스콜라적 지적 전통의 학술과 과학을 전파하는 데 공헌을 하였던 예수회 선교사들

의 활동에 눈을 돌 수밖에 없다. 가톨릭 선교사들 그 가운데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를 보좌하며 가톨릭의 칠죄종七罪宗을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 동아시아의 언어와 사상을 연결하려고 하였던 뻘또하Didace de Pantoja(1571년~1618년, 중국명 龐迪我)의 저서 『칠극七克』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단초가 된다.

이 『칠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윤리’ 또는 ‘윤리학’이라는 개념의 변천과 동서양 윤리학의 교류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들여다 볼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윤리’ 또는 ‘윤리학’이라고 번역되는 일컫는 ‘ethica’와 ‘ethics’가 각각 어떻게 소개되고 번역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서학윤리 사상이 동서기독교윤리사상의 가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지난한 여행을 시작해보자.

## II. 동아시아에 소개된 ‘에티카’ 그리고 ‘에티크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倫理’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ethics’이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라틴어 ‘ethica’와 영어 ‘ethics’를 동아시아 언어로 번역하고 개념 정의하였을까? 이런 물음에는 ‘ethics’를 번역한 근대 일본 학자들의 정의에 한정해서 이해하려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묻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세기 일본인들 보다 먼저 서양어 ‘ethica’를 한자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적은 16세기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문헌 속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예수회의 ethica의 번역과 일본 근대 학자들의 ethics의 번역은 각각 시대적 한계와 서양 윤리학사에서 윤리학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 1. 서학의 용어 厄齊加(ethica)

우선 서양의 학제, 학문을 간략하게 소개한 알레니의 『서학범西學凡』(1623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알레니는 『서학범』에서 ethica를 음차해서 厄齊加액제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이 액제가를 ‘수제치평修齊治平의 학’이라고 칭하고, 그 뜻을 “의리의 학을 고찰하며 철학에서 뜻하는 사물의 정세를 다룬다”고 풀이한다. 이 액제가는修身(윤리학), 齊家(가정학, 경제학) 治國平天下(정치학)를 포함한다. 수신(윤리학)에 대해서 “모든 것의 근본을 고찰하고 마땅히 선을 좇고 악을 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알레니의 ethica에 대한 소개는 당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알퐁소 바노니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윤리학』을 주석하고 중국어로 번안한 『수신서학修身西學』이 조선 후기에 수입되었는데, 이를 열람한 기록은 없고 1791년(정조15년) 12월에 강화 외규장각外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소각되었다는 기록만 있다. 이 때 서학서 가운데 철학과 관련 있는 책들도 함께 소각되었다. 그 목록을 보면 “『비록회답斐錄彙答』, 『영혼도체설』, 『수신서학』, 『齊家西學』”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1)</sup>

한국 사회는 17세가, 18세기에 이미 서양의 윤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서학논쟁의 영향으로 열람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가톨릭의 윤리기준이 되었던 <십계명>과 『칠극』을 통해서나마 서양의 윤리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할 수 있다.

1) 오지석, 『조선 후기 지식인사회의 서학윤리사상 수용과 이해』,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68. 노대환, 「정조시대 서기 수용 논의와 서학 정책, 정옥자 외, 『정조시대의 사상과 학문』, (돌베개, 1999), 240.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문서는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乃藏置書籍形止案』인데, 강화의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서양 서적을 규장각에서 보내온 관문에 따라 1791년(정조15) 12월에 소각했다는 보고가 들어있다.

## 2. 근대 번역어 ‘윤리’, ‘윤리학’<sup>2)</sup>

동아시아인으로 서양어 ethics를 한자어로 ‘윤리학倫理學’으로 처음 번역한 이들은 일본의 근대학자들인 이노우에 데츠지로井上哲次郎(1855년~1944년), 이노우에 엔료井上圓了(1858년~1919년) 라고 한다. ‘ethics’가 ‘윤리학’으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이노우에 데츠지로가 1881년 편찬한 서양 철학 사전인 『철학자휘哲學字彙』이다. 『철학자휘』에서는 ‘ethics’를 ‘倫理’로 번역하면서의 그 전거로서, 『예기』, 『악기』편의 “倫理에 통한다”<sup>3)</sup>와 『근사록近思錄』에 나오는 “윤리를 바르게 하고 은의를 돈독히 한다”(正倫理, 篤恩義, 家人之道也)를 부기했다.<sup>4)</sup> 정현과 명대明代의 『예기대전』 『악기』편에서 드러난 ‘倫理’는 각각의 무리가 갖는 그 무리의 존재원리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윤리를 행위의 마땅함이라 여기는 데 비하여 낮설다.<sup>5)</sup>

2) 이 부분은 이해경, 「근대 중국 ‘倫理’개념의 번역과 변용-유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37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98-101의 내용에 힘입어 정리하였다.

3) 『예기』, 『악기』 편에서는 다음처럼 소개하고 있다. “무릇 음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며, 樂은 윤리를 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만 알고 음을 모르는 것은 금수들이 그런 것이고, 음을 알지만 樂을 모르는 것은 못 백성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오로지 군자만이 樂을 알 수 있다. 凡音者, 生於人心者也, 樂者, 通倫理者也, 是故知聲而不知音者, 禽獸是也, 知音而不知樂者, 衆庶是也, 唯君子爲能知樂”

4) 『악기』의 ‘倫理’에 대해 정현鄭玄은 ‘倫은 무리(類)의 뜻이며 理는 나눔이다(倫猶類也, 理分也)’라고 주석했다. 그리고 명대의 『예기대전』의 주에는 “윤리란 사물의 무리가 각각 그 리를 갖는 것이다(倫理, 事物之倫類, 各有其理也)”라고 했다. 우리는 근대이전 중국에서 사용된 倫理라는 말이 ‘각각의 무리가 갖는 그 무리의 존재원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당위적 행위와 관련된 ‘윤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사록』의 글귀는 『역전』 ‘家人卦’에 정이천의 해석이다. ‘은의’가 情이라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것 이라면, 윤리는 그와 대비되어 준비의 구분이라는 객관적 질서와 관계된 것이다. 이해경, 앞의 글, 98-99.

5) 최근덕은 “윤리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물이 각각 지니고 있는 합당한 이치로 해석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마땅히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도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최근덕, 「조선시대 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72.

그렇다면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왜『철학자휘』에서 ethics의 번역어로 ‘무리의 존재’라는 뜻의 ‘倫理’를 선택하였을까? 그 일단의 답을 데츠지로가 1884년에 발간한 『윤리신설倫理新說』에서 찾을 수 있다. 『윤리신설』에서 그는 “윤리를 제창하기 위해 그 大本을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론상 윤리의 대본으로 삼을 만한 것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고찰해야만 한다<sup>6)</sup>”고 설파하였다. 데츠지로에 따르면 윤리학은 실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천의 학인 윤리학을 이론의 학으로 이해한 것은 이채롭다.

데츠지로보다 이노우에 엔료는 1888년에 발간한 『倫理通論』에서 ethics를 윤리학으로 번역할 때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윤리학은 서양말로 ‘에식스’라고 한다. 혹은 ‘모랄 필로소피’ 또는 ‘모랄 사이언스’라고 한다. 지금 이 말을 도덕학, 도의학, 수신학 등의 이름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나는 특히 윤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윤리학 즉 에식스는 선악의 표준, 도덕의 규칙을 논정論定하여 사람의 행위와 거동을 명령하는 학문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논정’이란 논리적으로 고려하여 구명한다는 뜻으로 가정과 억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sup>7)</sup>

이노우에 엔료는 ethics를 번역할 때 논리적인 탐구의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ethics의 번역어로 ‘윤리학’을 선택하였다. 그에 따르면 윤리학은 ‘윤’에 대한 리학理學 즉 사이언스<sup>8)</sup>이다. 즉 ‘윤리학’은 무리(倫)에 대해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사이언스이다. 엔료는 사이언스는 유럽에서도 근대

6) 井上哲次郎, 『倫理新說』, 文盛堂, 1884. 이해경 같은 글, 99에서 재인용.

7) 井上圓了, 『倫理通論』, 普及社, 1888, 제1장. 이해경, 같은 글, 100에서 재인용.

8) 앞의 책, “리학 즉 사이언스의 명칭은, 논리적으로 각종 사실을 고구하여 일정한 규칙을 살펴 정하고 하나의 학과로서 학문적으로 계통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해경, 같은 글, 같은 면에서 재인용.

에 성립한 것이며 동서를 불문하고 근대 이전에는 단지 “가정과 억측”에 근거한 어떤 것만이 있었다고 보았다.

서구화를 문명화의 모델로 삼은 일본인들은 ‘이론과 논리’를 문명의 표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윤리학은 단순히 ‘행위의 준칙’을 연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up>9)</sup>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동아시아 지적 전통에서 일본인들은 ethics를 윤리학으로 번역하면서 이를 서구 근대화의 산물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ethica를 액제가로 번역한 것은 근대이전의 서구 윤리학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III. 서학 윤리사상과 『철극』의 위치

#### 1. 서학 윤리사상과 『철극』

서학의 윤리사상이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한 서양의 윤리학적 전통을 유대-기독교의 신학 특히 토미즘으로 해석한 것과 동아시아 유학 전통과 만남의 결과로 발생한 기독교의 윤리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학의 윤리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스콜라 윤리사상,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 사상을 펼쳐 나아간 리치의 입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동물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이성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더 높은 이지적 욕구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

9) 이해경, 같은 글, 101.

10) 오지석, 앞의 책, 132.

다. 이 욕구를 토마스는 의지라고 불렀다. 도덕적인 행위란 바로 이런 의지에 따른 행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리치는 인간의 마음이 정상적일 때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 도덕적인 선을 택하도록 하지만, 마음이 사욕에 가리어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와 반대로 악행에 빠진다. 여기에서 선생과 악행 중 그 어느 하나를 택하게 하는 의지의 선택 또는 의지의 자유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목적론적 세계관에 따라서, 토마스는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선, 인간 자체를 완전하게 완성해내는 일이라 보았다. 따라서 우리의 선은 우리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토미즘에 바탕을 둔 인간론과 윤리학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우선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그는 먼저 영혼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성의 능력 즉 실천적 지혜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전개하고 있다. 그 이후에 ‘의지의 자유’와 ‘의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실 의지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3권의 1~8장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쟁점이었다. 리치는 인간론을 다루면서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론’까지 통합시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 그는 사물들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나 윤리적인 실천 의지는 모두 인간 영혼의 고유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리치의 생각에 따르면, 감각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개별자에 대해 보편적이고 타당한 인식을 얻는 기능이 바로 인간의 이성 능력이다. 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원하고 나쁜 것이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곧 의지의 능력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성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옳음과 그름, 다시 말해 시비是非를 판단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에 비해 의지력은 선한 것을 하려하고 악한 것을 피하려는 실천 능력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리치가 윤리적 의지,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인간 영혼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이성 능력 아래 놓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그에 따를 때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옳은 것이라고 사유한 경우에 한해서 그 옳은 대상을 좋아하려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마음의 호오好惡 기능을 리치는 바로 의지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말한 의지력은 선천적인 충동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성의 추론 과정에 의존해 있다. 이렇게 리치에게 있어서는 이성 능력이 의지력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이, 그의 윤리학을 곧 주지주의적인 성격의 윤리학으로 규정짓게 한다.<sup>11)</sup>

또한 리치는 『천주실의』에서 유교 윤리의 변용과 기독교 윤리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유교 윤리의 핵심 주제인 인간의 도덕적 자기완성이 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유교의 정통이론인 성선설과 연관하여 그것을 더욱더 기독교적으로 변용하여 발전시키는 논지 즉 양선론과 습성론을 펴 나간다. 또한 기독교적인 仁을 통한 자아의 완성을 추구한다.<sup>12)</sup>

이렇게 볼 때, 우선 서학의 윤리사상이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미즘 윤리학의 후예이며, 성리학(신유학)과의 만남을 통해 변용된 윤리 사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이제 조선후기 새로운 윤리의 실천서로 자리 잡아 서학을 공부하던 이나 신앙으로 신봉하던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뻘또하의 『칠극』에 대해 살펴보자.

『칠극』은 예수회 전교사 뻘또하 Didace De Pantoja(1571~1618, 龐迪我 字順陽)가 1614년 북경에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칠죄종七罪宗을

11)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이학사, 2000, 71-72.

12) 송영배, 『동서 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 논형, 2004, 35-38 참고.

13) 오지석, 앞의 책, 135.

극복하여 극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다. 즉, 칠죄종을 극복할 수 있는 칠추덕(七樞德)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13세기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뻬또하의 『칠극』은 17세기 신유학자들을 위해 중국어로 서술되어 있다. 『신학대전』에 비하여 『칠극』은 자유롭고 비공식인 문체를 사용했으며, “극기(克己)”라는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달리 말해 뻬또하는 서구의 스토아 철학이나 기독교 윤리를 유가의 용어로 구사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성서와 성인전, 그리스로마의 철학 및 대중적 이야기들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는 신유학의 윤리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범주들을 수용하여 기독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등과 같은 기독교 고유의 가르침을 우선적으로 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 삶 안에서 사악함을 극복하고 덕을 닦는 법을 먼저 설명하고자 했다. 그래서 김승혜는 『천주실의』가 유교 문화 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개념을 밝혀 준 책이라면, 『칠극』은 기독교적 수양관과 인간관을 제시해 준 책이라고 평가한다.<sup>16)</sup>

14) “칠죄종이란 교만, 질투, 인색,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등으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사악이라는 뜻이다. 칠죄종이나 칠추덕과 같은 개념은 사막의 수도자들이 덕과 사악을 구분하는 데서 유래했다. 영육간의 내적투쟁을 기초로 한 이 사상은 회랍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수도원에만 국한하던 이런 개념이 그레고리오 1세 S. Gregorius I (재임 590-604) 교황 때에 일반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신학대전』 제2권에서 윤리 부분을 취급할 때 칠죄종과 칠추덕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아퀴나스의 분류에 나오는 칠추덕은 신중, 정의, 자비, 강건, 절제, 순결, 온유이다.(뻬또하는 칠추덕을 겸손, 인내, 관대, 인내, 절제, 정절, 근면이라고 소개한다.) 김승혜, 앞의 글, 177. 칠죄종과 칠추덕에 보다 자세한 소개는 차오 웨이, 「그리스도교와 유가의 ‘극기’에 관한 연구-『칠극』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76-80을 참고하라.

15) 차오 웨이의 석사학위논문은 ‘극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칠극』을 분석하고 하고 있으며, 『칠극』을 ‘윤리사상’에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영성신학적 관점과 수양론이라 더 주목하여 서양 기독교의 극기론과 동아시아의 극기를 비교하고 있다.

그렇다면 **빤또하의 『칠극』의 내용분석을 통해 동서 윤리사상에 어떤 물림과 엇물림의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자.**

## 2. 동서 윤리사상 물림과 엇물림의 자리

조선 지배층의 윤리는 성리학에 그 견고한 뿌리를 두고 있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윤리규범을 마음속에서 찾았다. 도덕은 그 자체가 토대이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이상이 아니다. 이들에게 신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은 도덕 판단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타고난 도덕적 심성을 느끼는 것이 우선된다. 인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깨닫는 마음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사람이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사회적 존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이라고 여겼다. 다시 말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도덕이란 이미 정해져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전제로서, 이것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만물이 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17)</sup> 이런 조선사회에 새로운 윤리사상의 씨가 뿌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

16) 『칠극』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3.2에서 다룰 것이다.

17) 베이커는 이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리학자들은 인간관계 및 天地人의 조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다. 성리학의 도덕 목표는 위계질서가 정연한 전체 조직 안에서 각 구성자들이 정해진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사회와 우주 안에서의 완전하며 조화로운 협동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이들에게 불하를 일으키는 모든 이기적 관심과 편견을 소거함으로써 天地人이 理라고 하는 상호관계의 도덕적 네트워크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를 형성하려고 하였다. 인간사회와 자연세계를 초월한 신에 복종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천주교는 그러한 성리학의 도덕관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기에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는 현세의 공동체를 부정하고 개인주의를 조장하여, 사람이 내세에서의 보상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회를 외면하며 본성에서 멀어지게 되는 분열된 세계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도날드 베이커, 『조선 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김세윤 옮김, 일조각, 1997. 77.

아닌 영혼삼품설靈魂三品說에 기초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 도덕의 근거로서의 상제를 주장하는 서학의 윤리사상이었다. 이것은 한쪽에서는 물림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엇물림으로 그 반응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에게 윤리는 진리를 가늠하는 기준이었다. 그들은 논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진술도 그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울여야 할 주의를 빚나가게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회인들이 전하는 지식의 ‘존재存在’와 조선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행동의 ‘당위當爲’를 주장하는 것의 차이는 18세기 조선에서 일어난 유교와 서학(천주교)의 갈등의 근본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서학의 윤리사상을 접하면서 유교 윤리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 가운데 특히 신神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일부 계층에서는 익숙한 것 같으면서 전혀 낯선 윤리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양에서는 종교가 윤리적 가치의 근원이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현실적 도덕 기준의 시행을 돕는 데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의 윤리사상은 신학적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은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베이커는 그 이유를 ‘진리眞理’와 ‘윤리’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18)</sup>

서학에서는 인간을 금수와는 달리 이성 능력을 갖춘 존재로 보았다. 또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이에 비해 조선의 지식인들은 인간을 ‘윤리’라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로 보았다.

18) 베이커, 앞의 책, 125. 예수회 선교사들의 사상의 토대가 된 아퀴나스는 ‘진리가 선에 우선한다.’고 말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의 삶과 사상의 토대가 된 주희에 따르면,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베이커는 ‘진리와 윤리’의 대립으로 보았다. 이런 견해는 동서양의 윤리사상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리학에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사회는 성誠과 경敬을 강조하는 사회였지만, 공동체의 안녕과 유지에는 관심이 적었다.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가 심해져서 권력에서 떨어진 사대부들과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사회였다.

서학윤리사상은 이런 사회에 감시자로서 상제上帝를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자극이 되었으며, 그것은 조선 지식인들로 하여금 고대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제를 다시 주목하도록 이끌었고, 상제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도덕적 이상사회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서학의 윤리사상을 통해 신성神性を 재발견한 조선의 지식인들과 천주교 수용한 평민들이 자신들의 윤리 기준으로 삼았던 『칠극』<sup>19)</sup>과 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자.

리치와 함께 북경에서 활동하던 스페인 예수회 신부 뽀또하는 『칠극』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 윤리관을 소개했다. 당시의 유교에서 강조하던 윤리관은 효제孝悌나 충신忠信과 같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지만, 『칠극』에서는 그 윤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었다. 그리하여 그는 인간 내

19) 『칠극』은 한국 사회에 전래되면서부터 한글로 번역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잘 알려진 것은 구 한말(책의 뒤에 쓴 해가 병오년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음)에 仁港聖堂에서 요한(若翰) 金德敏이 낸 한글 필사본과 이를 요약한 것, 그리고 1857년 홍콩 나자로 수도원에서 뽀또하의 원서를 줄여서 상하 두 책으로 낸 『七克眞訓』을 박완식과 김진소가 공역한 『칠극·일곱 가지 승리의 길』(전주대학교출판부, 1996), 박유리가 1998년 일조각에서 번역해 펴낸 『칠극·그리스도교와 신유학의 초기 접촉에서 형성된 수양론』 등이 있다. 또한 이 『칠극』은 프로테스탄트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그 흔적을 한국 장로교에서 최초로 목사안수 받은 14인 가운데 한 사람인 송인서가 1918년에 번역한 『칠극보감七克寶鑑』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숭실대학교 박물관과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부에 적용되는 윤리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했다.<sup>20)</sup>

또한 뻘또하의 『칠극』에서 제시하는 도덕적 인간상이란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면서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마음이 육신을 다스리는 학자를 존경해야한다는 유학자들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뻘또하는 앞서 이야기한 가톨릭 윤리사상의 한 축인 칠죄종과 칠추덕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칠극』을 이에 맞추어서 7권 즉, ‘복오(伏傲<sup>21)</sup>’, ‘평투(平妬<sup>22)</sup>’, ‘해탐(解貪<sup>23)</sup>’, ‘식분(息忿<sup>24)</sup>’, ‘색도(塞饜<sup>25)</sup>’, ‘방음(坊淫<sup>26)</sup>’,

20) 뻘또하는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七克』, 『自序』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는 “욕망이란 천주가 사람들에게 몸을 보호하고 정신을 도우라고 내려준 것”<sup>1)</sup>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죄가 되고 악이 된다. 또 욕망이 마음속에 숨어 있으면 여기에서 부귀안락을 바라게 되고, 다시 부유는 탐욕(貪慾)을 넣고, 귀(貴)는 거만(驕)을 넣고, 안락(安樂)을 바라는 자아(我)를 이기면 질투(嫉妬)를 넣고, 그것이 자아를 빼앗으면 분노를 낳는다고 하였다. 그러니 사욕이란 그 부리를 하나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죄와 허물, 나쁜 행동과 언동 등은 빈심, 오만, 탐욕, 음탐, 태만, 질투심, 분심, 이 일곱 가지가 모여서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욕망을 이기고 덕을 닦는 일은 평생 힘써도 어렵다고 하였다. 그것은 세 가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근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이 깨끗이 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뻘또하는 욕망을 이기는 역량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이를 가르치기 위해 중국에 왔다고 하였다. 그는 유교의 현자들(儒賢) 가운데 덕을 닦고 사욕을 이겨내는 데에 힘을 기울이는 자가 많고 방법과 뜻도 일치하는데 다만 세 가지 폐단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자신이 이를 깨우쳐 주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뻘또하가 이 『칠극』을 쓴 목적이기도 하다.

21) 伏傲(교만을 누르다)를 1857년에 『칠극』을 상하권으로 축약한 『칠극진훈(七克眞訓)』에서는 ‘謙遜以克驕傲’, ‘謙克傲’라고 표기하고 있다. 『칠극보감(七克寶鑑)』에서는 ‘대일권 교만을 의론함(驕慢을論함)’이라고 번역하였다. 이하 『칠극진훈』은 『진훈』, 『칠극보감』은 『보감』으로 약칭한다.

22) 平妬(질투를 가라앉히다)를 『진훈』에서는 ‘論仁愛寬恕以克嫉妬第二’, ‘仁克妬(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길)라고 제목을 달고 있고, 『보감』에서는 ‘대륙권 질투를 의론함(論嫉妬) 데일장 평투(平妬)’라고 하고 있다.

23) 제3권 解貪(탐욕을 풀다)편을 『진훈』 하권 제5권 ‘施舍以克貪吝第五’, ‘私克吝(인내로 분노를 극복함), 『보감』에서는 ‘데이권 탐린을 의론함(論貪吝) 데일장 탐심을 푸러헤칠것’이라 하고 있다.

‘책태策怠<sup>27)</sup>’ 등으로 구성하고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sup>28)</sup>

김승혜는 『칠극』에서 지식과 덕의 실천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토미즘의 주지주의적 윤리사상의 특징을 발견한다. 뿐만아닌 성서와 그리스-로마의 지혜문서들을 인용할 때, 유교의 전문용어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智者)와 어리석은 사람(愚者)은 물론이고 군자君子와 소인小人, 그리고 현명한 사람(賢者)와 불초자不肖子등 유학의 전문용어를 차용하였으며,<sup>29)</sup> 또한 뿐만아닌 『칠극』에서 성리학에서 중요시하는 공사公私의 범주를 수용하여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시어 사사로움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至公無私)’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양론을 “자기를 극복하여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克己去私)으로 요약한다. 김승혜는 이것은 성리학자들의 ‘존천리거사욕存天理去私欲’과 별다를 바 없다는

24) ‘熄忿’(분노를 없애다)를 『진훈』 下卷 제3권에서는 ‘舍忍以克忿怒第三’, ‘仁克怒’(인내심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길)로, 『보감』에서는 ‘데스권 분노들의론홉(論忿怒)’로 표시하고 있다.

25) 『칠극』 제 5권 ‘塞饕’(탐을 내어 먹는 것을 막다)편을 『진훈』에서는 卷下 제6권에서 ‘淡薄守節以克貪饕第六’과 ‘淡食饕’(담박한 생활로 탐욕을 극복하는 길)라고 표제를 달고 있다. 또한 『보감』에서는 ‘데오권 탐식들의론홉(論貪食)’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다.

26) 『칠극』 제6권 ‘坊淫’(음란함을 막다)편을 『진훈』에서는 卷下 제4권에서 ‘논정결이극사음제사論貞潔以克邪淫第四’과 ‘貞克淫’(순결로 음욕을 극복하는 길)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감』에서는 ‘데삼권 음란들의론홉(論淫亂)’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다.

27) 『칠극』 제7권 ‘책태’(게으름을 채찍질하다)편을 『진훈』에서는 卷下 제7권에서 ‘懷春忻勤以克懶惰第七’과 ‘勤克怠’(근면으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보감』에서는 ‘데칠권 히트들의론홉(論懈惰)’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다.

28) 우리나라에서 『칠극』에 관한 연구는 김승혜에 의해 시도되었고, 그 연구의 성과를 넘어서는 후속 연구 없이 김승혜의 연구를 답습하는 것이 『칠극』 연구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29) 김승혜, 『『七克』에 대한 연구』, 뿐만아닌, 『칠극』, 박유리역, 일조각, 2005, 458.  
 “뿐만아닌 사악과 덕을 일곱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지자와 우자도 일곱 가지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였다. 『칠극』의 각 편은 그 전반부에서는 각각의 사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반부에서는 그 사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덕을 묘사함으로써 제시한다. 일곱 개의 범주로 나누어진 우자와 지자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제1권 ‘복오伏傲(傲者 - 謙者)’, 제2권 ‘평투平妬(妬者 - 恕者)’, 제3권 ‘해담解貪(貪者 - 惠者)’, 제4권 ‘식분熄忿(忿者 - 忍者)’, 제5권 ‘색도塞饕(饕者 - 節者)’, 제6권 ‘방음坊淫(淫者 - 貞者)’, 제7권 ‘책태策怠(怠者 - 勤者)’”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칠극』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자. 우선 제3편 ‘해탐解貪편’에서 뽀또하는 富 또는 財物에 대한 서양의 고대<sup>30)</sup> 윤리학 자들과 기독교 윤리학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해탐편에서 아 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핵심인 ‘행복’의 개념을 통해 탐욕에서 벗어나 는 길을 소개하고 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난 학자가 있었다. 따라서 격리궁리格物窮理 의 학문을 닦으려는 서양의 학자들은 모두 그를 으뜸가는 어른으로 숭배하 였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논의하면서, 먼저 (그 것이) 세상의 富에 있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무엇 때문일까?

참된 복은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것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富를 참된 복이라고 하는 까닭은 바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니 富가 아름다운 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것을) 가짐에 있지 않고, 도리어 베풀어 사용함에 있다. 곧 우리에게 붙어 있지 않 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으니, 어찌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31)

뽀또하는 『칠극』에서 기독교적 인간론을 제시하면서도 원죄나 인간의 죄악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본래의 인간본성이 선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의 욕망도 절도를 따르면 좋은 것이고 인간성숙에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뽀또하의 입장은 ‘분노’를 ‘자연적이고 일시적인 분노(忽怒)’와 ‘의식적으로 쌓여진 분노(畜怒)’로 구별하는 데서 살펴볼

30) 서양 고대 철학자로는 디오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등이 언급되고 있고, 신학자로 서는 아우구스티누스, 안토니우스, 이레네우스, 그레고리우스 등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다.

31) 같은 책, 156-157.

수 있다. 忽怒란 어떤 환경 속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감정인데 반해, 畜怒는 복수하려고 의식적으로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sup>32)</sup> 憚또하의 인간이해는 자기 욕망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이해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인간존중으로 이해할 수 있는 憚또하의 수양론은 유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을 이어주는 매개이며,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憚또하는 하나님(上帝)를 사랑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그 다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함을 넓혀서 사물에 이르는 것이 仁의 덕이라고 설명한다. 김승혜는 이를 현대 윤리사상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에 대한 논의 선구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칠극』의 제6편과 제7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6편을 살펴보자. 이 ‘방음坊淫편’이라고 하는데, 이 제 6편은 ‘정덕貞德’과 ‘혼취정의婚娶正義’<sup>34)</sup>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윤리’, ‘부부윤리’, ‘일부일처제’, ‘실천적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효’ 즉 대를 잇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던 동아시아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데 커다란 갈등을 야기하는 하였다. 그래서인지 憚또하는 “음란이 마치 물이 넘쳐 나는 것과 같은데, 이는 마음을 끈고 바르게 하여서 막아야 한다.”고

32) 李之藻 편, 『天學初函』 제2권(1629), 學生書局 884쪽; 『七克』, 忽忍者, 人情也, 畜怒, 則罪人矣, 蓋怒老則成惡惡成與殺人罪等. 이 부분을 박완식·김진소는 “인간에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오랜 동안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곧 죄악이다(184쪽)”고 번역했다. 이 논문에서 저본으로 삼는 박유리는 “갑자기 성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다. 그러나 성냄이 쌓이면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된다. 그리고 아파 성을 내는 것이 오래 가면 약함을 이루게 될 것인데, 약함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람을 죽이는 죄와 같을 것이다. (201)”라고 번역하고 있다.

33) 김승혜, 앞의 글, 185.

34) 제 6권 방음편의 구성은 『칠극』과 『진훈』 그리고 『보감』이 각각 다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칠극』- ‘貞德’(음욕을 끊어낸 공덕), ‘婚娶正義’(혼인의 바른 뜻); 『진훈』- ‘論貞德’; 『보감』- ‘데일장 간음을 막을 것’, ‘데일장 덩정이 큰 덕을 일음’, ‘데삼장 음심을 소멸케 하는 데도를 엄금함’, ‘데스장 음란의 길을 미리 막을 것’.

하면서 글을 펼치고 있다.

‘방음편’에서 뻘뜨히는 음란이란 ”(그것은) 더러운 재미를 즐기면서 스스로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악의 근원으로써 음란을 상정하고 있다.<sup>35)</sup> 왜냐하면 음란이라는 것을 마음이 어두워져 사리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칠극』 「방음편」에서는 여성을 지자와 우자라는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지자에 해당하는 자를 정자貞者라고 하였고, 우자(어리석은 자)를 음자淫者라 칭하고 있다. 뻘뜨히는 정자貞德의 종류를 세 가지로 논하면서 현명한 부인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sup>36)</sup> 여기서는 성서와 서양의 고대 사상가들의 생각을 빌려오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자의 말씀도 인용하여 자기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는 특히 ‘기독교의 혼인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논증을 통해 ‘남녀의 동등성’ 또는 ‘평등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뻘뜨히는 원래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다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축첩에서 오는 질투와 자녀들 간에 일어나는 불화에 대한 긴 토론을 첨가하였다.

뻘뜨히는 부부로 맺어진 사이는 친구로 맺어진 사이보다는 가깝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이 친구를 맺을 때에 서로 대등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데, 부부 사이를 맺으면 어찌 대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내는 동등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차등이 없는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친구를 맺을 때에 서로 대등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고, 부부 사이는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와의 결합이다. 이처럼 뻘뜨히는 축첩하는 중국의 관습보다 남편과 아내는 상호간의 주인이 되는

35) 뻘뜨히, 앞의 책, 323.

36) 뻘뜨히, 앞의 책, 353쪽. 뻘뜨히는 정결을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가 지키는 부부의 정결과 홀아비와 홀어미가 지키는 정결(수절), 그리고 童貞의 몸을 지키는 정결의 세 단계로 이해하였다.

것이라고 바울의 서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 전통의 일부일체제가 당시 중국의 습관보다 나음을 가르치고자 했다.<sup>37)</sup>

또한 뻘뜨히는 불교와 도교의 전통의 독신獨身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기독교의 독신에 대한 견해를 중국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당시 유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 독신의 문제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서학을 비판할 때 늘 언급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서양 기독교 윤리사상이 유교 사회에 제시한 도전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다.

뻘뜨히는 제7편에서 ‘게으름’을 다루면서 기독교의 인성론과 시간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윤리사상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게으름에 대해 ‘(그것은) 덕행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모든 욕망에 거리낌이 없고, 귀찮은 일을 견뎌내지 못하고, 선에 대한 굳은 자세가 없고, 여가를 바라고, 하는 일 없이 놀고, 잠이 많은 것’은 게으름의 가지들이고 ‘음란한 욕망, 먹고 마심에 절제가 없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을 시기하는 것, 농담을 하는 것, 쓸데없이 웃는 것, 나쁜 일을 꾀하는 것, 남을 헐뜯는 것’ 등이 기원한다고 하고 있다.

뻘뜨히는 행동을 선택하는 일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7) 『七克』, “天主經中有言 婦不爲自身之主 夫爲其主 夫亦不爲自身之主 婦爲其主”. 조광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가족의 중심축을 ‘부자간의 상호 관계부터’ 부부간의 상호 관계로 옮기고자 했다. … 한편 19세기 전반기 교회에서는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축첩을 거부하고 일부일체제를 강력히 제시했다. 그러므로 축첩 관행이나 배우자가 죽기 전에 타인과 혼인하는 중혼을 금지했다. 그리고 부부간의信義를 강조하면서 부부간에 있어서 여편女便뿐만 아니라 남편男便도 대등하게 신의를 지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부부간의 신의는 타인과의 혼외 관계를 거부하는 거신데 조선의 전통 관습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럽 교회에서 형성되어 존중받아 왔던 금욕주의적 전통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가족 윤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조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景仁文化社, 2010, 437-439)

그 하나는 선행이다. ... 인간의 욕망을 이겨내고, 바른 도를 닦고, 하나님을 섬겨서 죽은 뒤의 영원한 세월의 일을 미리 준비함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시) 그 하나는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다시) 그 하나는 (바깥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덕이 있는 선비들은 마음을 기울여 그것을 꺾는다. ...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도덕에 마음을 기울이는 참된 생각을 품고 있을 뿐이다.

예수회 전교사들의 윤리사상은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영향을 받은 제2토미즘의 인성론과 영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칠극』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편인 ‘책태편’에서 기독교의 인간론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였고, 따라서 이 두 부분이 결합하여 전체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런데 영혼은 이성과 의지를 갖고 있어서 육체의 주인이 되며, 육체는 영혼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게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無에서부터 직접 창조하였고, 육체적 부분은 부모에게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뿐만아니라 리치가 아니마(animam)를 번역하기 위해 채택한 靈魂이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학의 전통에서 혼魂은 ‘기’에 속하기 때문에 불멸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학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뿐만아니라 묘사하기 위해 ‘혼’ 대신에 신령한 밝음(靈明)등 ‘이’에도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를 택하였던 것 같다.

성리학자들은 ‘성’을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누었는데, 이런 구분이 뿐만아니라 영혼과 육체라는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性이란 곧 理이므로 인성뿐 아니라 만물에게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인간과

사물의 차이는 질에 있기보다 인간의 氣 가 더 신령하다는 면에서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뻘또하는 육체는 형구形軀라는 일정한 용어로 번역하면서 영혼은 영신靈神, 영명靈明, 신령神靈, 영심靈心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인간 안에 부여된 천리天理 곧 본연지성本燃之性과 같음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되면 영신 뻘 나머지 부분인 형구는 자연히 기질지성氣質之性에 해당하게 된다. 뻘또하는 인간만이 영명성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수양을 해야 할 책임도 인간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본성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뻘또하의 입장은 원시유교의 입장과 맞는 것으로 상당수의 유학자들에게도 설득적이었다.<sup>38)</sup>

또한 뻘또하는 게으른 자를 근면하게 하는 방법을 논하는 ‘책태편’에서 시간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시간에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그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보물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다. 인격수양에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자(愚者)가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智者)가 된다. 그런데 뻘또하는 최고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인 죽음 후의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天主)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이) 받은 理性의 마음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 뒤에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본모습을 뵈고, 그곳의 복과 즐거움을 누리려 그들이 타고난 바탕의 완전한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sup>39)</sup>

38) 정약용은 정약전묘지명에서 『천주실의』와 『칠극』을 읽었다고 했는데, 영명성, 형구, 자주지권 등의 용어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뻘또하가 제시한 인성론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그의 인성론을 발전시켰다. 김승혜, 앞의 글, 465에서 재인용.

39) 뻘또하, 같은 책, 424. “天主所以造人何爲乎 則使之今生據所賜理心善事天主 而後歸於天境 得見天主本體亨其福樂 以是得其性之全福焉”. 김승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ㄷ뺏뺏하의 소개를 통해 유교와 기독교가 모두 시간을 중시하지만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교 전통에서 시간은 윤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마지막 때’를 언급하지 않는다. 유교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시중時中을 중시한다. 군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위치, 책임과 대인관계 전체를 저울질하여 그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바른 것을 분별한다. 다시 말해서 유가는 현재의 시간에 주목하고 지금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 해야 할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둔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시간의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현재를 마지막 때와 직결시킨다. 육체의 부활은 최종적 축복으로서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끝은 궁극적 가치를 지닌다. ㄷ뺏뺏하는 마지막 때를 인간의 최종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기독교의 시간관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덕을 닦는 수양은 인간을 하늘로 이끄는 길이라고 단언하여 자신을 알아(知己) 하늘을 알게 된다(知天)고 주장한다. 지기에서 지천으로 가는 배움의 과정은 『맹자』 「진심」편 1장에서 보여주듯이 유가의 입장을 잘 드러낸 것이다. 결국 ㄷ뺏뺏하는 종말 또는 궁극을 지향하는 기독교의 시간관과 현재를 중시하는 유가의 시간관을 결합하여 자신의 윤리사상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우선 ㄷ뺏뺏하의 윤리사상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우선 유교의 인간 중심적 윤리 방향과 관습에 대해 기독교적 도전을 시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칠극』에서 제시한 가장 뚜렷한 방향의 전환은 신神 중심적 윤리관을 소개한 것이다. 『칠극』에서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의 근거를 ‘신의 명령’, ‘신

---

번역하고 있다. “천주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여된 理心을 따라서 천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세상을 마친 후 인간은 천경에 들어가서 천주의 실재를 눈으로 볼 것이다.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된다.” (김승혜, 같은 글, 466)

의 보상'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卞또하의 윤리사상은 그가 비록 유교의 용어와 범주를 쓰지만 다르다. 卞또하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한 이유가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는 유학자의 입장에 대해 '유교가 보상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한다는 백성들의 의지를 실제로 약화시켜왔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卞또하는 중국의 성윤리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며 일전을 불사한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일부일부체가 실천되어야 할 이유와 동정童貞이 최고의 貞德임을 강조하였다. 종교적 독신제는 불교나 도교 전통을 통해 중국에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卞또하가 제시하는 신에게의 헌신이라는 윤리적 이상은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포함한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기독교가 제시한 도전 가운데 동아시아인들에게 가장 큰 매력을 지닌 것이다.<sup>40)</sup>

『칠극』에 대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반응<sup>41)</sup>을 보면 먼저 이익은 『성호사설星湖僊說』 권11에서 『칠극』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칠극』은 우리 유교의 극기설이다”라 하여, 『칠극』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 악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공자의 ‘극기(克己復禮)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서학의 윤리의식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반면에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이 책을 읽고 평하기를 『칠극』은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며, 그 안에 비록 심각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취할 바가 못된다고 했다. 이규경李圭景(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태서의 책에 말한 그 이치를 불교와 도교 등과 비교해보면 우리 유교와 가장 부합된다. 그 가운데 『칠극』 등과 같은 유는 모두 자신에게 절실한 학문이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마라”고 하는

40) 思鄉歌 등 한국 가톨릭교회의 天主歌辭에는 『칠극』의 내용이 七盜와의 신적 전투를 상징하는 이미지들이 대폭 수용되고 있다.

41) 이 부분은 오지석 박사논문의 4.22 부분을 발췌하였다.

데 이는 『대학』에서 말하는 명덕明德이라는 것이고 지미호至美好라는 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지선至善이다. 다만 세밀히 나누고 중간 중간에 신기한 마술 같은 말들을 섞어 놓았을 뿐이다”라고 하여 이익의 설에 동조하고 있다.<sup>42)</sup> 또한 신앙인으로서 윤지충尹持忠(1759~1791)은 1791년 전주에서 신문을 당할 때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며 『칠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표현했다.

19세기 ‘위정척사衛正斥邪’의 깃발을 올린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는 『華西集』권 7 「三毋妄與四勿相反辯」과 「洋人七克與吾儒八刑相反辯」에서 『칠극』에 대하여서 ‘내용이 모두 재화와 이욕 일변에 치우쳐 있음을 들어, 금절하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임을 미루어본다면 서학은 역시 형기 재화와 이익에 근본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sup>43)</sup> 또한 그는 칠극을 사물과 팔형과 비교하며 비판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일곱 가지 금법禁法の 조목 가운데 단지 재화와 식물에 관한 조목만을 입법하고 절도죄목은 모두 빼버렸는데 주관(周禮)의 여덟 가지 형벌에는 불효와 불제 이하의 큰 죄목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道와 더불어 상반되는 것인데, 여러 논변들이 설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sup>44)</sup>

“우리 유학의 이른바 네 가지 말리는 것(四勿: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라는 글자를 계시하여 표준을 삼게 한 것이니, 이 예라는 것은 공순과 공경, 사양과 겸손으로써 근본을 삼아 절문節文(절차)과 도수度數가 상세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sup>45)</sup>

42) 원재연, 「오주 이규경의 대외관과 천주교 조선전래사 인식」, 『교회사연구』 제1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143쪽.

43) 광신환,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철학과현실사, 2005, 387.

44) 李恒老, 『華西集』, 김위희 역, 양우당, 1988, 392.

“서양 사람들의 이른바 ‘망령되이 생각하지 말라(勿妄念)’는 것과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勿妄言)’, ‘망령되이 행동하지 마라(勿妄動)’는 세 가지 것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이 망령이고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를 논하지도 아니하고, 덮어놓고 허무 맹랑한 공갈을 하여 머리를 숨겨 놓은 설화가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소위 망령됨이라는 것은 “인군에게 절하고(拜君), 부모에게 절하며(拜父), 귀신에게 제사드리는” 허다한 사람됨 도리를 가리켜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과연 진실인가, 망령인가? 세 가지 망령되지 말라三勿望는 것이 우리 유학의 사물망四勿妄은 교훈과 정히 서로 반대되고 있는데, 삼물망三勿望은 즉 四勿妄의 각주이라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다.”<sup>46)</sup>

한편에서는 삶의 기준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체를 뒤 흔들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 『칠극』은 한국기독교 윤리사상의 첫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의 서양인에 의해서 전해진 서양 윤리 사상의 한 편린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遊士들의 등장과 종교다원·다원적 가치·문화 다원의 시대에 상생과 상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칠극』은 서양과 동아시아가 사상의 회통이 막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에 저술된 흥미로운 하나의 역사적 작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서양의 학문을 하거나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동아시아인에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5) 같은 책, 396.

46) 같은 책, 397.

#### IV. 나오는 말

한국 사회에서 ‘윤리’ 또는 ‘윤리학’<sup>47)</sup>이라는 말은 번역어이면서 또한 전혀 낯설지 않은 용어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서양어인 ethics 또는 ethica를 누가 언제 무엇이라고 번역했는지에 대한 개념사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ethica와 ethics의 번역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있는 서양 윤리학에 대한 두 층위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각 액제가, 윤리학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번역의 주체와 시대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성품과 덕을 중요시 하였던 계몽주의 이전의 시대에 소개된 서양의 윤리학 특히 가톨릭의 윤리학은 동양에서 『칠극』이라는 책으로 꽃을 피웠다.

『칠극』이라는 책은 전혀 사유 체계를 구축한 채 독립된 세계를 구성했던 동양, 서양의 지적 전통이 서로 물리고 잊물린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서양인 뻬또하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아시아적인 표현을 가지고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리라는 틀 속에서 동 서양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려고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칠극』은 동서윤리학의 교류 가능성과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학이 고민해야 할 방법론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47)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 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즉 올바른 실천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는 학문, ‘당위의 학’, ‘가치의 학’이라 불리는 서양 고전 윤리학의 소개는 기독교 윤리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말을 번역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 李之藻 撰. 『天學初函』 제2권(1629). 學生書局
- 李恒老. 『華西集』. 김위희 역. 양우당, 1988
- 곽신환. 『조선조 유학자의 지향과 갈등』, 철학과현실사, 2005.
- 김승혜. 『『七克』에 대한 연구』, 뿐만아, 『철극』, 박유리역, 일조각, 2005.
- 도날드 베이커. 『조선후기 유교와 천주교의 대립』. 김세운 옮김. 일조각, 1997.
- 백민정. 『정약용의 철학』. 이학사, 2007.
- 송영배. 『동서 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 논형, 2004.
- 오지석. 『조선 후기 지식인사회의 서학윤리사상 수용과 이해』,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원재연. 「오주 이규경의 대외관과 천주교 조선전래사 인식」. 『교회사연구』 제17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 이혜경. 「근대 중국 ‘倫理’개념의 번역과 변용-유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제37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 조 광. 『조선후기 사회와 천주교』, 경인문화사, 2010.
- 차오 웨이. 「그리스도교와 유가의 ‘극기’에 관한 연구 『철극』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최근덕. 「조선시대 윤리사상」. 『한국윤리사상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논문투고일 : 2011. 04. 30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확정일 : 2011. 06. 09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동서양의 기독교윤리사상은 어떻게 만났을까? 라는 물음을 풀어보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기독교와 동아시아의 만남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 일컬어지는 예수회 선교사들의 등장과 그들의 학문적 작업은 동서 윤리사상의 가교를 놓았다. 서학윤리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한 서양의 윤리학적 전통을 유대-기독교의 신학 특히 토미즘으로 해석한 것과 동아시아 유학 전통과 만남의 결과로 발생한 기독교의 윤리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학서들 가운데 디에고 데 뻬또하의『七克』은 서학 윤리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칠극』은 윤리라는 틀 속에서 동 서양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뻬또하가『칠극』에서 시도한 방법론은 동서윤리학이 만나야 할 지점과 한국에서 기독교 윤리학이 고민해야 할 방법론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서학, 서양윤리학, 유교윤리, 칠극, 뻬또하

---

